

작품 개요

「구혼」은 시인 조병화(趙炳華, 1921~2003)의 4번째 시집 『인간고도(人間孤島)』 중의 한 곡으로서 작곡자가 33세 때인 1955년 4월 10일 작곡되었다.

이 곡은 1955년 4월 12일 배재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柳慶孫, 1921~2011)에 의해 초연되었고, 1967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세번째 가곡집 『나운영 가곡선』(한국음악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작품 해설

이 곡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조국을 잃은 우리 민족의 비통함과 처절함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가사의 의미전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작곡자는 반주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거의 무반주에 가까운 읊조리는 듯한 선율선이 전곡의 중심 아이디어로 채택하였다.

선율의 움직임은 완전4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국악적인 색채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음계적인 전조기법 및 반음계적인 선율의 움직임은 후기 낭만파적 또는 표현적 색채 역시 농후함을 보여준다. 이 곡의 핵심적 요소는 선율의 움직임이다. 거의 중얼거리는 듯한 (Sprechstimme) 독백적 묘사가 전반부를 장식하고 중간부분(마디 24~35)에서는 처음으로 증4도 음정과 감7화음이 등장하면서 절정감을 이루어 준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No. 1

作 者

作 曲

編 曲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No. 1, featuring piano and vocal parts. The score is written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The piano part includes triplets and a section marked "Sempre 8va". The vocal part includes the lyrics: "이 열근 열근들은 디르디보삼시 오".

東和音楽出版社